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서 흥(興)의 문제

이한석 *

I.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 대한 접근

“시조(時調)는 고산(孤山)”이라는 구절이 있을 만큼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국문시가 작품들¹⁾은 일찍부터 한결같은 찬사를 받으며 다각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윤선도문학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작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시인의 자연관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작품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흥(興)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연관’과 ‘흥’이라는 키워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비교적 일치된 문제의식 아래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피는 과정에서는 일치된 견해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락성(遊樂性)과 이념성(理念性)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듯한 작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반된 주장들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들을 크게 두 입장으로 나누어 각각의 성취와 한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1) 본고의 대상이 되는 윤선도의 국문시가 작품들은 「국역 고산유고」(이형대·이상원·이성호·박종우 역, 소명출판, 2004, pp. 312~338)에서 인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어부사시사」에 해당하는 각 수를 지칭할 때는 해당하는 수가 속해 있는 계절과 계절에서의 차례로만 표기하였다.

로 「어부사시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우선 작품에 나타나는 홍의 양상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부분에서 홍이라는 정서를 중심으로 이념성과 유락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작품 전체를 조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어부사시사」의 유락성(遊樂性)과 이념성(理念性)

「어부사시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각 논자들이 작품의 주요한 성격으로 포착한 내용에 따라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그 첫 번째는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홍과 자연인식을 유락적(遊樂的)²⁾인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민홍의 경우, 「어부사시사」에 나타나는 어부의 홍에는 도가적(道家的)·유락적 모티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인간세계를 떠난 초탈적인 즐거움으로 파악하였다.³⁾ 김홍규 역시 17세기에 유가적 이상주의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었던 시인이 직접적으로 강호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로서 이러한 면모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⁴⁾

이러한 해석에서 강호자연이란 공통적으로 현실정치에서 유리된 즐거움의 공간으로 전제된다. 위의 논자들의 지적처럼 시인의 유락적인 홍취란 공적(公的) 가치 혹은 유학이념의 실현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일로서 갑작적으로 발생한 즐거움이 된다. 곧 개인적인 차원에서 향유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강호자연은 현실정치와는 무관한, 현실의 고뇌로부터 차폐된 공간이 되는 것이다.

2) 이러한 입장에 속한 논자들이 작품의 성격을 거론하며 이용한 용어로는 ‘유락성’ 외에도 ‘유홍성’, ‘유희성’, ‘낭만성’ 등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놀며 즐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연을 갑작적으로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얻으려 하였다는 의미로 ‘유락성’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였다.

3) 李敏弘, 『增補 士林派文學의 研究』, 月印, 2000, pp. 261~264.

4) 金興圭, 「〈漁父四時詞〉에서의 ‘興’의 性格」, 『한국 고전시가 작품론』 2, 白影鄭炳昱先生 10週忌追慕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集文堂, 1992, pp. 557~558.

이러한 견해는 「어부사시사」의 참신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자연공간이 몰입하여 즐거움을 구해야 할 공간이라면, 이러한 공간에서 노닐었던 시인은 유학이념의 매개에 의해 세계를 인식했던 이전시기에 비해 자연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⁵⁾ 이처럼 「어부사시사」를 유락성 중심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자연에 대한 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경물묘사의 구체성을 끌어올린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창주오도(滄洲吾道)를 네브터 닐린더라
단 디여라 단 디여라
칠리(七里) 여흘 양피(羊皮) 옷은 괴 엇더호니린고
지국총(至芻恩) 지국총(至芻恩) 어스와(於思臥)
산천눅빛 낙시질은 손 고분 제 엇디던고 「동9」

강산이 휴대(休怠)를 내 분(分)으로 누엄느냐
남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힘을 잃어 업세라 「여부사여음」(「만홍6」)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묘사된 강호공간 자체가 이념과 절연되어있지 않으며, 그가 자연에 반응하는 양상이 단순히 감각적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부에 의탁한 자신의 모습을 그린 「동9」에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어부는, 현실사회로부터 눈을 돌려 자연물을 완상하는 즐거움에 빠져들고만 있지는 않다. 오히려 처사로서의 도리를 닦았던 염자릉(嚴子陵)과 때를 기다리던 강태공(姜太公)에 스스로를 비김으로써 현실에 대한 지향을 밀고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동9」에서 시인이 두 인물의 이미지를 화기하며 정치현실·유학이념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어부사시

5) 李敏弘, 앞의 책, p. 260; 위의 논문, p. 555. 문영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겨울이 되면 옆은 바다에서 놀던 고기들이 깊은 바다로 이동한다는 생태살이의 습성(「동3」), 겨울철이 되어 벌어지는 뱃바닥의 틈을 막는 일상(「동2」) 등과 같이 사소하지만 생동하는 현장을 포착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시인이 이러한 활동을 실제로 경험했음을 충족하기도 하였다. 문영오, 『孤山文學詳論』, 태학사, 2001, pp. 357~359.

사」의 배경이 되는 강호라는 공간이 정치현실과 불연속적이거나 무관한 공간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또한 창작 이후에 이 노래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각 계절의 말미에 덧붙여 부른 「어부사여음(漁父詞餘音)」⁶⁾ 역시 작품의 성격을 재고하게끔 한다. 초·중장에서 그는 강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임금 은혜로 표현되는 사회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강산을 좋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잡는 모습으로 시상이 마무리 된다. 요컨대, 시인과 강호자연 간의 관계를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유락에만 국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맞닿은 또 다른 입장에서는 「어부사시사」를 이념성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심미적 충족·해방과 드높은 흥취”라는 김홍규의 평⁷⁾과 달리 성기옥은 어부의 흥을 두고 “어딘가 空疎한 느낌을 준다”⁸⁾고 평가하였다. 정치현실과 자연 간의 불연속성을 전제한 앞의 입장과 달리, 성기옥은 둘 사이의 연속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시인에게 자연은 사회의 두 층위를 의미한다. 자연은 현실의 층위에서는 타락한 현실정치와 대립하고 있지만, 이상의 층위에서는 현실이 지향하여 합치되어야 할 공간인 것이다.⁹⁾ 따라서 현실적으로 탐욕으로 얼룩진 현실정치와 맑은 자연은 대립하지만, 자연은 사회의 이상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두 공간의 관계는 연속적이다.

고정희는 나아가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자연을 인문화된 자연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시인에게 강호자연은 인간사회의 연장인 까닭에 시인이 인식하는 자연현상이란 사회적으로 획득된 윤리적 준거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자연현

6) 「어부사시사」 뒤에는 어부사시사에 대한 서(序)와 함께 「어부수여음(漁父詞餘音)」이라는 이름 아래 「만홍6」과 동일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여음이 창작 당시에 첨가된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시인이 스스로 이러한 여음을 더하여 불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시인의 사회지향성·이념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7) 金興圭, 앞의 논문, p. 556.

8) 성기옥, 앞의 논문, p. 227.

9) 위의 논문, p. 226.

상이라는 것이다.¹⁰⁾ 예컨대,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뜨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문면상 긍정적 현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강호자연은 추구해야 할 공간이고, 부정적 현상이 팽배한 현실정치의 세계는 멀리해야 할 공간이 된다.¹¹⁾

이렇듯 작품 속의 자연물을 사회적 이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논자들은 자연히 어부가 자연물로부터 느끼는 흥을 자족적이고 충만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선다. 자연과의 진정한 합일이란 사회 속의 개인에서부터 자연세계에 이르는 전우주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부가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란 이상을 더듬을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에만 근거한 빈약한 정서이기 때문이다.¹²⁾

그러나 시인이 표현한 흥의 순수성·자족성을 의심하기에는 「어부사시사」 문면의 대부분이 어부의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한다. 예컨대, 중렴(中斂)을 합쳐 총 50행으로 이루어진 「춘사」에서 사회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란 두 행¹³⁾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48행은 어부가 즐겁게 노니는 일상을 그리고 있다. 곧 「어부사시사」의 배경인 강호자연과 그 공간에서의 정서인 흥의 의미는 관념적인 소망의 공간이나 이념이 만들어낸 허상(虛像)에 국한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입장에서는 앞서 지적되었던 표현상의 성취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고정희의 경우 작품에 나타나는 시어가 “추상 관념을 가리키는 데” 쓰였음을 지적하는데,¹⁴⁾ 이는 시인이 묘사한 자연물은 이념을 담기 위한 의도 아래 동원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의 수단으로서 자연물을 동원하는 과정에 「어부사시사」가 놓

10)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 월인, 2004, pp. 110~114; pp. 126~127.

11) 고정희는 이러한 윤선도의 자연인식을 두고, 사회규범에서 비롯한 틀에 의해 자연물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거꾸로 자연물에 의해 현실사회가 부정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모순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위의 책, p. 209.

12) 성기옥, 앞의 논문, p. 241.

13) 「춘6」의 종장 “삼공(三公)을 불리소나 만수(萬事)를 성각(成克)하라”와 「춘8」의 종장 “인세(人世) 흥딘(紅塵)이 언매나 그렷느니”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14) 고정희, 앞의 책, pp. 127~131.

여 있다면, 작품의 표현에 대한 평가는 묘사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한 방식으로 추상적인 이념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달려 있게 된다. 이 경우 표현상의 성취를 의미하는 ‘현장감’, ‘사실성’과 같은 평어는 사실상 큰 의미를 얻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앞서 유락성 중심의 해석이 설명해주지 못했던 화자의 사회지향성과 자연지향성을 관통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한다. 현실에 거리를 두려는 모습과 이념에 대한 관심이 함께 등장하는 모순적 형상을,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이상에 대한 추구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갈구하며 현실정치를 멀리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이상이 실현되어야 할 공간은 현실정치인 까닭에 시인은 사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어부사시사」는, 자연과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층위와 자연과 연속성을 이루어어야 하는 이상의 층위 사이에서 조화를 갈구하는 염원의 발로가 된다.¹⁵⁾

이렇듯 두 입장은 상보적(相補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측면에서 공존할 수 없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유락성의 입장이 강조하였던 표현상의 성취, 홍의 비중에 대해서 이념성의 입장이 조명할 수 없었다. 거꾸로 후자가 무게를 두었던 자연지향과 사회지향의 합일은 전자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시각을 달리하는 두 입장 모두 부분적으로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어부사시사」의 한 측면을 설명해준다는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선 작품 자체가 유락성과 이념성을 함께 담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작품 안에 이미 두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부사시사」를 조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요청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은 별티 죄얀는덕 물결이 기름 같다
이어라 이어리
그물을 주어듀라 낙시를 노흘일가

15) 성기옥, 앞의 논문, p. 245.

지국총(至芻惄) 지국총(至芻惄) 어스와(於思臥)
 탁영가(濯纓歌)의 흥(興)이 나니 고기도 니즐로다 「춘5」

여튼 갠 고기들히 먼 소히 다 같느니
 돈 드라라 돈 드라라
 저근던 날 둔흔 제 바탕의 나가 보자
 지국총(至芻惄) 지국총(至芻惄) 어스와(於思臥)
 멋기 골다오면 굴근 고기 든다 혼다 「동3」

실제로 「어부사시사」가 담고 있는 흥과 자연인식의 양상 자체는 일견 일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위의 「춘5」와 「동3」은 각각 봄과 겨울에 낚시하는 어부의 즐거움을 그려낸다. 그러나 두 즐거움의 내용은 사뭇 다르다. 「춘5」에 나타나는 즐거움은 어부이면서도 고기에 대한 일까지도 잊어버린 즐거움이다. “탁영가(濯纓歌)의 흥(興)”이라는 말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표면적으로 낚싯배에 몸을 싣고 있지만 그 즐거움이란 낚시에서 느끼는 정서와는 무관한, 고결하고 맑은 마음에서 밀려나오는 듯하다.

반면 「동3」에서는 가까운 곳에 물고기가 없더라도, 좋은 날을 골라 미끼만 잘 쓰면 굵은 고기도 잡을 수 있음을 노래한다. 이는 실제 어부(漁夫)가 월척을 낚아 올릴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마음과 흡사해 보인다. 앞서 「춘5」의 화자가 물고기에 대한 일은 잊어버린 채 이념적 즐거움에 빠질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동3」에서 자연물과 즐거움은 모두 현실의 수준으로 하강하는 듯 보인다.

이렇게 이념성과 유락성이라는 상이한 두 요소가 「어부사시사」라는 한 작품 안에 각기 「춘5」와 「동3」의 형태로 깃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둘 중 어느 한 쪽에만 치중한 견해들로서는 윤선도의 작품세계를 오롯이 조명할 수 없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작품 자

16) 이념성과 유락성은 단순히 「어부사시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선도의 다른 시조작품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성격이다. 「춘5」의 이념성은 「산중신곡」 안에서도 「만흥(漫興)6」이나 「오우가(五友歌)」 같은 작품들과 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흥3」이나 「야심요(夜深謠)」에는 순수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만이 표현됨으로써 「동3」의 유락성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체에 나타난 흥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흥을 중심으로 유락성과 이념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III. 수양(修養)에서 우러나온 청홍(淸興)

앞서의 지적에서처럼 「어부사시사」에서 흥이 정서를 응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문면에 나타난 흥을 직접적으로 살피기 이전에 작품이 다루는 정서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찍이 김대행은 「어부사시사」에서 각 계절의 전반부(1장~5장)와 후반부(6장~10장)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통찰을 보여준 바 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각기 낮과 밤, 물과 물,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 희망찬 외부지향적 정서와 조용한 내면지향적 정서 등의 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다는 것인데,¹⁷⁾ 이후로도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해석에 대해 긍정의 표시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통찰은 공교롭게도 작품에 나타난 흥의 분포와도 일정 수준 상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총 40수로 이루어진 「어부사시사」에서 ‘흥’이라는 단어는 9회 등장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각 계절마다 약 2회에 걸쳐서 ‘흥’이 언급되고 있으며¹⁸⁾ 대체로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한 번씩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이 가지는 정서적 집약기능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분포현상이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계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서로 다른 정서적 양상이 지배적인 만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흥에 의해 그러한 정서들이 응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는다
탁영가(濯纓歌)의 흥(興)이 나니 고기도 니줄로다
방초(芳草)를 불와 보며 난지(蘭芝)도 뜨더 보자

「춘4」 종장
「춘5」 종장
「춘7」 초장

17) 金大幸, 「〈漁父四時詞〉의 外延과 內包」,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p. 16.

18) 「추사」의 경우에는 유독 3회의 빈도수를 보이는데 「추1」과 「추4」는 전반부의 특징을, 「추6」은 후반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漁父) 생애(生涯) 아니려냐 「추1」 초장

「춘5」, 「하1」, 「추1」 등 전반부의 정서를 집약하는 흥은 “조흔 일”(「추1」)이라고 지칭된 것처럼 청홍(淸興) 혹은 맑은 흥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⁹⁾ 각 계절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어부의 즐거운 모습이란 기본적으로 맑고 깨끗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어부사시사」 전편을 통해서도 어부의 즐거움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며 먹고 마시는 질탕한 풍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춘5」에 나타나는 흥이란 물고기를 많이 낚아 배불리 먹으려는 마음이라기보다도,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어부의 본분마저 잊어버린 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인 것이다. 이는 앞서 「춘4」의 경물로부터 연비어약(鷺飛魚躍)의 상장을 읽어내어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념적 즐거움을 구가(謳歌)한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는 어부의 행위가 소박한 즐거움의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도덕적 수양에 가깝다는 점은 전반부의 ‘흥’이라는 단어의 전후로 도덕적 고결함을 의미하는 구절이 배치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앞서 「춘5」의 종장에서는 시적 정서를 “탁영가(濯纓歌)의 흥”으로 규정함으로써, 굴원(屈原)이 지니고 있던 도덕적 고결함에 대한 연상작용 속에서 흥을 이해하게끔 하였다. 나아가 「춘5」에서 탁영가의 청홍을 즐긴 뒤에 그가 행하는 일이란 날이 저물자 그러한 자연현상의 변화에 순응하여 물으로·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굴원과 같이 향초(香草)를 뜯으며 마음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년님회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단 드러라 단 드러라
 청약립(靑箬笠)은 써 잇노과 녹시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至芻惄) 지국총(至芻惄) 어소와(於思臥)
 무심(無心) 흰 빙구(白鷗)는 내 쪘는가 제 쪘는가

「하2」

19) 역시 다음 절에서도 서술하겠지만, 이러한 특징은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흥의 전반적인 성격이기도 하다.

물결이 흐리거든 밭을 싶다 엊더흐리
이어라 이어라
오강(吳江)의 가자 혼니 천년노도(千年怒濤) 슬플로다
지국총(至芻惄) 지국총(至芻惄) 어스와(於思臥)
초강(楚江)의 가자 혼니 어복퉁흔(魚腹忠魂) 난글세라
「하」

「하4」

마찬가지로 「하1」에서 시작한 “깊은 홍” 역시 「하2」에서 청약립(靑筠笠)과 녹사의(綠蓑衣)로 구성되는 깨끗한 형상, 그리고 이와 조응하는 무심한 흰 갈매기의 이미지로 전개됨으로써 어부의 맑고 욕심 없는 마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나아가 「하4」에서 오자서(伍子胥)와 굴원의 고사를 가져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맑은 삶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데에 이르면, 시인이 말하는 즐거움이란 현대에 일반적으로 ‘홍’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영역²⁰⁾을 벗어나 있는 듯한, 정제된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

이 청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대 성리학의 수양론과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리학에서 수양이라는 것은 이치(理)를 지켜나가는 것을 내면화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이치는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률과 같이 외적으로 고정된 규범이 아니다. 심성론에서는 내면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마음에 흡족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는 원리라고 보는 것이다. 곧 서로 대립하는 욕망과 감정들을 조화할 수 있는 원리인 까닭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장 즐겁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울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내적으로 윤리성과 즐거움을 담보하는 이치는 외적으로는 자연세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성리학이 전제하는 천인합일이라는 개념은 자연세계의 당연의 법칙과 인간의 당위의 법칙이 같은 구조를 지녔다는 뜻이다. 곧 마음에서부터 자연세계에까지 올바름의 원리인 이치가 관통하는 까닭에 한 개인이 이치를 지켜 행동하는 수양은 온 세계와 하나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²¹⁾

20)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홍’은 ‘재미나 즐거움을 일으나게 하는 감정’으로 되어 있다

청홍을 둘러싼 맑은 이미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청홍은 시인이 자연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시인에게 자연이란 정치현실과 마찬가지로 수양의 장(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인과 자연의 만남이 상징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강호자연 역시 시인이 마주하여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는 또 다른 현실상황인 것이다.

수양공간으로서 강호자연을 마주하고 화자는 자연물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이른다. 이치를 싉아 자연세계와 조화되는 것은 내면적인 구속이 없는 상태인 까닭에 즐거움과 흥취를 느낄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러한 지점에 청홍의 정서가 놓여있는 것이다. 결국 작품에 나타난 청홍의 양상이 실제 당대 사대부의 유흥행태 혹은 현대인의 즐거움에 대한 인식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시인의 흥을 허위적이고 관념적인 포즈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시인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볼 때 적절하지 못한 평가일 것이다.

이러한 청홍에 대한 이해는 윤선도의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유락성과 이념성이라는 서로 다른 특징을 해명하는 첫 번째 실마리를 제시한다. 먼저 자연물 앞에서도 화자가 이념적 수양의 태도를 견지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때 작품에 깃든 이념성은 쉽게 조명될 수 있다. 정치현실에서 뿐만 아닐 강호자연에서도 시인의 태도는 일관되게 이념적이다. 자연 앞에서 화자는 결코 질탕한 풍류로는 빠져들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입장과 달리 이러한 이념성이 흥취의 순수성을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자연물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즐거움의 원천이 관념이나 감각 어느 한 쪽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실천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춘5」와 「동3」의 정서가 공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고기가 풍성한 봄날에도 맑은 마음으로 행위할 수 있을 때, 물고기가 적은 겨울날에도 그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즐거움을 누리기에 족하다는

21)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1, p. 124.

것이다.

아울러 「어부사시사」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경물묘사를 통한 홍의 표출은 같은 맥락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홍이란 자연물을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이념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하는 즐거움인 까닭에, 표현되는 자연물이 구체적일수록 수양과 청홍의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각 계절의 전반부의 정서가 동적이고 외부지향적 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인의 내면적 이념성이 실천을 통해 즐거움이라는 정서로 표출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IV. 여홍(餘興)에서 비롯하는 궁리(窮理)

사실 「어부사시사」 후반부에 나타나는 홍에서도 맑은 성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추6」에서도 홍의 성격이 “청홍”으로 규정되고 있음은 이러한 점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앞서 「춘5」를 설명하면서도 전반부의 맑은 홍이 후반부에서도 맑음을 지향하는 행위들로 여전히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던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김대행의 지적처럼 동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는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서는 정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곧 「춘9」, 「하6」, 「추6」, 「동10」 등 각 계절의 후반부에 배치된 홍이 집약하는 정서적 특징은 단순히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맑다는 점만으로 특징지어질 수 없음을 암시한다.

낙시줄 거더 노코 봉창(篷窗)의 들을 보자
 닫 디여라 닫 디여라
 흐드 밤 들거나 조규(子規)소리 묻게 난다
 지국총(至芻惣) 지국총(至芻惣) 어스와(於思臥)
 나믄 홍(興)이 무궁(無窮) 헛니 갈 길흘 니젓띤다

「춘9」

긴 날이 져드는 줄 홍(興)의 미처 모르도다

돈 디여라 돈 디여라
빗대를 두드리고 수묘가(水調歌)를 불러 보자
지국총(至芻惄) 지국총(至芻惄) 어스와(於思臥)
우애성동(歛乃聲中)에 만고심(萬古心)을 끼 뉘 알고 「하6」

넓브람 고이 부니 드론 듣기 도라와다
돈 디여라 돈 디여라
명식(瞑色)은 나아오디 청홍(淸興)은 머려 인다
지국총(至芻惄) 지국총(至芻惄) 어스와(於思臥)
홍슈청강(紅樹淸江)이 슬피디도 아니흔다 「추6」

후반부에 흥이 나타나는 대목들을 살펴보면 사정상 흥취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춘9」에서 “갈 길”이 있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이미 날이 저물어 흥을 거두고 돌아가야 때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춘10」에서 “리일(來日)이 또 업스랴 봄밤이 몇 던 새리”라며 흥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시간적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6」과 「추6」의 배경 역시 땅거미가 내려오는 가운데 돌아가야 할 때를 가리키고 있지만, 화자는 단풍나무와 맑은 강의 모습에 발길을 붙잡히며 흥을 쉬이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후반부에 나타나는 흥을 놀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지속하는 ‘여흥(餘興)’이라 지칭해볼 수 있겠다. 후반부가 그려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전반부에서 크게 일어난 청홍에 몸을 푹 파묻은 결과, 날이 어두워지고 잔치가 과한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는 그 여흥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흥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여흥의 등장이 화자의 고뇌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이다. 「하6」에서는 수조가(水調歌)를 부르는 가운데 만고(萬古)의 역사를 생각하는 마음, 혹은 만고에 변하지 않을 자신의 일관된 마음을 돌아켜보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노래를 부르는 어부의 흥이 단순한 취기(醉氣)에서 비롯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춘9」에서도 달과 자규(子規)의 울음소리는 그의 여흥이 가벼운 즐거움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윤선도의 시조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달이

시인의 인격적 지향을 의미한다는 점은 지적된 바 있다.²²⁾ 곧, 달을 보고 자구소리를 들으며 화자가 몸담고 있는 여홍이란 결코 감각적인 즐거움에 그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후반부의 정적인 이미지, 하강적인 정서를 집약하는 여홍에는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어부의 모습, 좀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고민하는 사대부로서 시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홍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청홍의 성격으로부터 이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부의 청홍이란 이치를 통해 세계와 합일되는 수양에서 비롯한 정서적 반응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반응은 그것이 궁정적인 감정이라는 점에서 계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런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개인이 자연의 이치에 결합하는 것을 즐거움의 시초로 삼는다면, 즐거움의 완성은 인간사회와 자연의 합일에 놓이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개인과 자연의 합일[獨樂]보다 사회와 자연의 합일에서 오는 즐거움[共樂]이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리학적 배경을 살펴볼 때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리학적 수양의 궁극적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성인은 앞서 살펴본 달의 이미지처럼 세계의 만물을 내면의 덕성으로 적셔나가는 덕화(德化)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곧 성인의 사업으로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란, 성기옥의 지적처럼 개인과 자연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와 자연 사이의 연속성을 이를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완성된다.²³⁾ 수양에서 비롯한 청홍은 지속·확대되어 여홍으로 이어지면서 시인을 성인의 경지로 밀고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여홍의 장면에 화자의 고민이 중첩되는 것, 계절의 후반부가 전반부에 비해 고요하고 성찰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점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강호자연이라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수양이었다면, 이러한 수양은 자신이 현재 위치한 공간으로부터 세계에 이치를 다할 수 있는

22) 조해숙, 「五友歌」의 시적 구조와 의미 분석, 『韓國詩歌研究』 1, 한국시가학회, 1997, pp. 428~432.

23) 성기옥, 앞의 논문, pp. 230~233.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서적으로도 개인과 자연의 합일이 청홍이었다면 이를 더 누리고 싶은 욕구는 자연히 화자를 인간사회와 자연의 합일로 밀어 가게끔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홍의 장면에 나타나는 화자의 고민이란 단순히 출사하지 못한 불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현재 위치한 공간에서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궁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궁리란 기본적으로 실천한 것의 이치를 반성하여 미루어나가는 성찰의 과정인 까닭에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앞서 청홍이 강호자연에서 지내는 일상적인 실천의 결과로 비롯한 것이라면 여홍의 결과 화자는 이러한 일상적인 실천을 사회 전체로 미루어갈 수 있는 원리를 내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청홍에 이어 여홍까지 살펴본다면 선행 연구들에서 대립의 근간을 이루었던 유락성과 이념성이 결코 대립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윤선도의 작품에서 홍은 유락성과 이념성을 매개하여 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윤리감정으로 작용한다. 청홍에 대한 앞의 논의에서처럼 홍은 분명히 자연과의 구체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수양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이다. 그런데 청홍은 그 자체로 화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로 인식되며 계속되고 확대되려는 경향을 가지는 정서인 까닭에 그것이 고조되고 지속되는 여홍의 단계에 이르면 사회적 조화라는 이상을 계속하여 추구하도록 화자를 밀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성리학의 윤리관·정치관이 자연에서 출발하여 인간사회에, 개인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사회에 이르는 노정으로 구성되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과의 만남에서 개인의 감정으로 발생한 청홍은 고조된 여홍에 이르러 시인의 내적 능력을 자연스럽게 인간사회의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는 것이다. 곧 유락성과 이념성이란 자연을 마주한 화자가 일으킨 한 정서의 두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어와 쳐므러 간다 연식(宴息)이 밟당토다
비 봇터라 비 봇터라

가는 눈 빼린 길 불근 곳 훗더던 뒤 홍치며 거러가서
 지국총(至芻恩) 지국총(至芻恩) 어소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넘도록 송창(松窓)을 벗겨 잇자 「동10」

그 형식상의 특징²⁴⁾으로 「어부사시사」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10」에서는 이러한 홍의 매개적 성격을 구조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다. 초장에서는 화자가 누린 청홍의 정서를 암시한다. 저물어간다는 표현은 이전의 39수에 걸쳐서 어부가 즐거움을 누리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는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기에 시인은 마땅히 잔치를 파해야 할 때에 순응하여 잔치를 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낮에는 자강불식(自強不息)하다가 날이 저물면 들어와 편안히 쉬는 삶의 리듬 자체가 ‘때를 따르는 도’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⁵⁾

종장에서는 밤중에 송창에 기대어 달을 보며 고민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앞서 달의 의미를 시인 자신의 이상(理想)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지적과 소나무가 가진 함의를 상기해본다면, 달이 넘어갈 때까지 송창에 기대어 바라보고 있는 종장의 장면은 처사로서 궁리하는 그의 모습과 그 궁리의 목표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낮에 누린 즐거움을 돌이켜 성찰함으로써 이러한 즐거움을 전(全)사회적으로 미루어갈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자 시인은 밤이 늦도록 궁리에 잠겨있는 것이다.

김홍규는 화자를 송창에 기대어 있도록 만드는 내적 원인으로 중장의 홍을 지적한 바 있다.²⁶⁾ 곧 초장에서 중장에 이르는 아름다운 강호자연의 즐거움과 종장에서 나타난 수양의 궁극적인 지향은 중장의 여홍을 통해 매개되는 것이다. 잔치가 파한 뒤에도 흰 눈과 붉은 꽃의 자연현실은 끝까지 시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시인의 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성(盛)해있다. 이에 그러한 감정은 지속되기 위하여 사회로 뻗어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화자를 궁리로 아끈다.

24) 「어부사시사」 전편에서 유일하게 「동10」에서만 촉금한 호흡, 4음보의 파격이 나타나며, 「동10」 종장만이 일반적인 시조 종장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25) 고정희, 앞의 책, p. 152.

26) 김홍규, 앞의 논문, p. 555.

초장에 암시된 청홍이 중장까지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종장의 궁리에 이르게 하는 이 「동10」의 구조는 그대로 「어부사시사」의 각 계절의 구조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10」은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홍을 통해 자연에서 얻은 즐거움을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어부사시사」의 결론으로 봄직하다.

한자어인 ‘홍’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기뻐하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느끼다’ 혹은 ‘일으킨다’는 뜻을 가진다고 할 때, 「어부사시사」에서 나타나는 정서를 홍으로 포착한 시인의 통찰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를 통해 강호자연에서 직접적으로 느낀 기쁨(청홍)이자 수양의 일환으로서 자연세계와 인간사회를 포함한 우주적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여홍)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맑은 홍이 자연물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비롯한 고양된 정서라면, 남은 홍은 다시금 수양의 목표를 환기시킴으로써 치열한 궁리를 이끌어내는 힘을 제공한다. 곧 윤선도의 작품에서 이념성과 유락성은 서로가 서로를 고양시키는 순환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어부사시사」의 미적 성취로서 흥(興)

이상을 통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 읽어낼 수 있는 시인의 자연관과 홍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시인에게 자연이란 도피의 공간이나 관념적 소망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연물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방도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일상적 수준에서의 수양이 재고(提高)한 정서는 각 계절의 전반부에 배치된 청홍을 중심으로 집약된다. 이것이 허위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일 수 있는 까닭은 이치를 통해 화자와 자연이 합일될 수 있다는 연속적 세계관에 놓여있다. 이념을 실천한 결과로서 즐거움인 청홍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홍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인 까닭에 지속되려는 경향을 지닌다. 곧 이러한 합일이 시인 자신과 자연물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와

자연세계 전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잔치의 순간이 파하더라도 남아있는 고양된 정서로서 여홍은 시인을 수양의 다음 단계인 궁리로 밀고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후반부의 정서를 응집하는 여홍은 이렇게 화자의 즐거움을 시인 개인의 차원에 갇히지 않게 하고 그러한 즐거움을 천하로 밀어나가게끔 화자를 돌려하는 매개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여홍의 단계에서 고양된 즐거움은 또다시 이념적 대옹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화자가 자연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수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이념적이지만, 궁리는 새로운 수양의 단계로 화자를 밀어가는 계기가 바로 자연과의 합일에서 비롯한 정서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유락적일 수도 있다. 이렇듯 홍이란 윤선도 작품의 두 측면인 유락성과 이념성이 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매개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양을 통해 화자는 즐거워할 수 있으며, 즐거움을 통해 화자는 또다시 수양을 진일보해나갈 수 있는 힘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선도의 홍은 이념적임에도 관념이나 상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홍을 통해 화자는 정서적으로 고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최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을 「어부사시사」의 미적 성취로 꼽을 수 있는 까닭이란, 홍을 통해서 시인의 세계관과 인간관이 응집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세계관이란 개인에서부터 인간사회와 자연세계가 하나의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서, 인간이 그 연속성의 핵심인 이치를 따를 때에 비로소 자연과 합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이념적 대옹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청홍의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그 인간관이란 이러한 연속적 세계관을 전제로 사회와 윤리에 대한 지향이 즐겁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즐거움을 통해 궁리를 계속하는 여홍의 구조를 가능케 해준다. 다시 말해, 성리학에서 전제하는 사회와 윤리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실제로도 즐겁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윤선도의 성취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역 고산유고』, 이형대·이상원·이성호·박종우 역, 소명출판, 2004.
- 金大幸, 「〈漁父四時詞〉의 外延과 內包」,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 金碩會, 「윤선도의 자연관과 그 실현양상에 관한 한 고찰」, 『고산연구』 1, 고산 연구회, 1987.
- 金興圭, 「〈漁父四時詞〉에서의 ‘興’의 性格」, 『한국 고전시가 작품론』 2, 白影鄭炳昱先生 10週忌追慕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集文堂, 1992.
-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 월인, 2004.
- 문영오, 『孤山文學詳論』, 태학사, 2001.
- 성기옥, 「고산 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1.
- 李敏弘, 『增補 士林派文學의 研究』, 月印, 2000.
- 조해숙, 「『五友歌』의 시적 구조와 의미 분석」, 『韓國詩歌研究』 1, 한국시가학회, 1997.